

화순군립요양병원, '화순군민 치매안심병실' 운영



화순군민 치매안심병실 지정...군민 간병비 무료 혜택 제공 "집중 관리받고 환자·가족 모두 행복해지는 맞춤형 서비스"

화순군은 지난 28일 화순군립요양병원과 함께 '화순군민 치매안심병실'의 운영 개시를 알리는 현판식을 거행했다.

화순군립요양병원은 올해 3월 전남 최초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후, 지역의 치매 환자 치료 및 완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현판식을 통해 화순군민 치매 환자 간병비를 지원하는 '화순군민 치매안심병실' 운영을 개시했다.

화순군립요양병원은 총 60병상 1개 병동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운영 중이며, 그중 22개 병상(4실)을 '화순군민 치매안심병실'로 운영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치매 환자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는 간병비를 지원해줌으로 화순군 치매 환자들이 치매안심병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받고 환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화순군립요양병원이 지역병원으로 주민에게 이바지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행정팀(☎ 061-379-5304), 입원 관련 상담은 화순군립요양병원 원무팀(379-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 쌀' 프랑스로 수출길 올라... 세계화 도약



담양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네덜란드와 체코에 이어 프랑스로 진출하며 유럽인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담양군은 지난 1일 담양군농협 쌀조출공동사업법인이 주식회사 아트리치와 계약해 프랑스 파리에 담양쌀 12톤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올해 1월 네덜란드와 체코에 담양쌀 60톤 수출 이후 이어진 유럽 수출로, 최근 한류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식이 세계적인 건강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 담양군은 이를 시작으로 담양 농특산물의 수출길을 더욱 넓혀나갈 계획이다. 담양 쌀은 대한민국 명품쌀 평가 대상, 현재 13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7회 대상, 5회 최우수상을 받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쌀이다.

현재 담양군은 유럽 3개국 이외에도 코로나 이전까지 미국에 3개년 동안 37톤을 수출했으며, 올해 상반기 7톤을 수출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나주시, 여름방학 초·중학생 영어 실력 쑥쑥

중학교 2학년 학생 30명 미국 메릴랜드주 현지 정규수업 지원
초등학교 5~6학년 100명 동시대 기숙형 영어캠프 참가

나주시가 여름방학을 맞은 지역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중학교 2학년 학생 30명은 8월 3일까지 메릴랜드주 세인트 앤드류 어포슬 스텝 현지 정규수업과 명문대학 탐방 등에 참여한다.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과 함께 현지 수업에 참여하고 가정에서 숙식하는 홈스테이 방식으로 외국어 역량과 건문을 넓히고 있다.

어학연수 경비는 1인당 700만원으로 자부담 50%를 제외한 350만원을,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전액을 나주시가 지원했다.

초등학생은 관내 대학교에서 영어 실력을 쌓고 있다.

동시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지난달 31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되는 기숙형 영어 캠프에

는 초등학생 5~6학년 학생 100명이 참여한다.

학급·수준별 6개 반을 편성해 원어민 교사와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 기초 외국어 과정과 더불어 신문·방송·뉴스 제작, 수학·과학 등 교과 연계수업 등을 다채롭게 병행하며 영어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교육 경비는 1인당 130만원(자부담 39만원)으로 91만원을,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전액을 각각 지원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방학 기간 외국어 능력 향상을 물론 건문을 넓히고 미래 진로를 그려보는 소중한 경험과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명품교육도시 나주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외국어 교육 기반 강화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장성군,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 모집

귀농기초 소양교육, 필수 영농기술 습득... 이달 25일까지 신청

장성군농업기술센터가 하반기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은 귀농에 필요한 지식과 영농기초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초보 귀농인에게 호응이 높다.

귀농기초 소양교육, 작목별 재배 체험, 선도농가 방문 등을 통해 영농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 귀농 초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모집기간은 이달 25일까지로 9월 5일 개강해 주 2회, 총 10회 열린다. 회당 4시간 수업받는 일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누리집이나 귀농귀촌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김수권 기자

교육 신청은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메일, 팩스를 이용하면 된다.

장성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초과정 외에도 △성공귀농품목 전수교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귀농인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별 신청기간이 달라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경영팀(061-390-7180)에 문의하거나, 누리집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군 관계자는 "선배 귀농인과의 만남과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농업 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곡성군, 맞춤형 행복 지표 개발 중간 보고회 개최

곡성군이 지난 1일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이라는 민선 8기 군정 목표 아래 맞춤형 행복 지표 개발을 위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같은 보고회는 이상철 곡성군수와 윤영규 곡성군의회 의장 및 의원, 군민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보고회에서는 국민총행복연구소의 이재경 소장으로부터 지표개발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군에서는 그동안 군민이 직접 행복 지표를 그려 갈 수 있도록 지난 5월 50여 명의 군민과 함께 원탁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읍면을 직접 방문해 170여 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행복 인터뷰를 진행하며 행복에 대한 주민의 생각과 인식을 확인하기도 했다.

국민총행복연구소에서는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역 사회 통합, 아직 행복하지 않은 청소년-청년, 여성 행복, 고령층, 건강, 먹거리, 주거환경, 지역에 대한 자부심 분야 등에서 곡성군민의 특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군에서는 제언을 바탕으로 오는 9월 초까지 맞춤형 행복 지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곡성=양해영 기자

구례군, 화기에애한 정례 조희로 직원 간 소통 강화

구례군은 8월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8월 정례 조희를 개최했다.

구례군은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하는 정례 조희 시간을 활용해 직원들의 재능 기부, 매력 발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무과 유준근 주무관이

동료들의 위해 수준 높은 기타 연주와 함께 분위기 있는 노래를 부르며 정례 조희 시간을 화기에애하게 만들었다.

김순호 군수는 "경직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직원들의 다양한 개성과 끼를 마음껏 분출할 기회를 자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 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관